

USDA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

이 창 훈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 2017년 미국 축산부문 전망

2016년 미국의 주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및 칠면조) 생산량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2016년 미국의 적색육(Red Meat)과 가금류(Poultry) 생산량은 총 966억 파운드(pound)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한 1,006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쇠고기 생산량은 미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와 함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 시장 내 쇠고기 가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송아지 사육에 따르는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 2017년의 소 사육두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돼지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초반의 양돈 수익성 증가로 인해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이를 경계한 양돈농가들은 사육두수 확장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지속적인 사육 확장의 여파로 2017년의 돼지 도축물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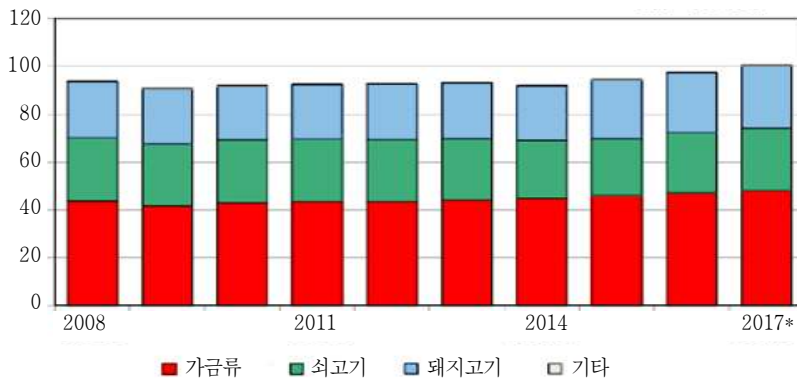
칠면조의 경우 2016년 상반기 가격이 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고병원

* (lchgod85@gmail.com). 본고는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의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부분을 번역 및 정리함.

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2017년의 칠면조 가격은 연말 재고량 과다로 인해 전년도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육계에서 발병하는 닭가슴살 근육병(breast muscle myopathy; woody breast)에 따른 도체 중량 감소로 인해 향후 생산량은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미국 주요 축산물 생산량 전망

단위: 백만 파운드



주: *는 전망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2017년의 쇠고기, 돼지고기 및 칠면조 가격은 각 품목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하락할 것이며, 닭고기의 경우에만 2017년 초반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축산물의 가격하락은 미국의 축산물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 증대 효과는 일정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2017년 미국 주요 축산물 생산량 증감률

단위: 십억 파운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증감률(%)
쇠고기	23.7	25.2	26.0	3.1
돼지고기	24.5	24.9	26.2	4.9
육계	40.0	40.7	41.5	2.1
칠면조	5.6	6.0	6.1	2.3
합계	94.6	97.6	100.6	3.1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2017년 미국의 조사료 가격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4~3/4분기의 옥수수 가격은 3.40달러/부셸(bushel)¹⁾로, 과거 2015~2016년 전망치인 3.61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4/4분기의 가격은 3.50달러/부셸로 전기 대비 10센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1/4~3/4분기의 대두박 가격은 2016~2017년 전망치가 반영된 325달러/톤에 근사할 것이며, 4/4분기 가격은 2017~2018년 전망치를 반영한 330달러/톤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미국의 건초 공급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역 간에는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미국 남부 평야지역의 건초 공급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대다수의 북부 평야지역은 감소하였으며, 미국 남동부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역시 건초 생산량에서의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7년 1월 기준 미국의 전체 소 사육두수 중 약 20%(2016년 약 11%) 가량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뭄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초 공급의 불확실성은 올해 미국 내 소 사육요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가뭄의 분포가 미국 서부 건조지역에서 점차 중앙평원(Central Plains), 남동부 및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건초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동부 지역의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률 하락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2017년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U.S. real GDP)은 전년대비 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 역시 전년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미 달러의 강세로 인해 미국산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인센티브는 일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7년 미국 축산물 생산 전망

2.1. 소 및 쇠고기 생산 전망

미국의 소(cattle) 사육두수는 200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사육두수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1월 가축동향 보고서²⁾에 따르면,

1) 해당 가격은 2016~2017년 예상치를 반영하여 추정되었음.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소(송아지 포함)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9,360만 두이며, 육우(beef cow)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3,120만 두로 추정되고 있어 2017년 전체 기간 동안의 소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소 사육두수 동향

단위: 백만 두



주: *는 전망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미국의 소 사육 농가들은 비육우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2017년에는 미경산우(heifer)를 1% 가량 더 사육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암송아지(heifer calves) 역시 전년대비 1% 더 많이 사육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또한, 2016년 미국의 송아지 출산두수는 전년대비 3% 가량 증가한 3,510만 두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송아지 출산두수이다.

2014년 이후의 사육두수 증가 현상은 과거(2014년~2015년) 송아지 사육으로 인한 높은 수익률에 대한 농가의 반응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 남부평원의 사육환경이 양호하여 다수의 사육농가가 2017년 봄철 분만을 위한 번식 결정을 내린 것도 사육두수 증가 추세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⁴⁾ 한편, 최근에 비육용 송아지(feeder calf)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수익률이 급락했지만 연초의 사육두수 유지 결정과 생물학적 순환(biological cycle)에 따른 지연효과로 인해, 2017년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비육장(feedlot)에서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는 소규모 비육장 사육농가의 사

2) USDA's January Cattle report.

3) 하지만 사육농가들은 젖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경산우 및 암송아지 사육비율을 1%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음.

4) 2016년 5월 불과 10%의 육우가 미국 내 가금 우려지역에서 사육되었음.

육두수 감소로 인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한 1,310만 두로 추정되었다.⁵⁾ 하지만, 목초지에서 사육되는 소의 경우 송아지 생산량 증가와 사료 작물의 목초지 활용성 증대로 인해 오히려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및 멕시코의 소 사육두수 정체로 인해, 2016년 미국이 수입한 소는 전년대비 감소한 171만 두를 나타내었다. 더욱이 2017년에도 이들 국가의 사육두수 정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두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68만 두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상업용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260억 파운드⁶⁾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상반기에 과거(2016년 말~2017년 초) 쇠고기 비축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소(거세우, 미경산우 및 젃소) 도축량은 전년에 비해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의 쇠고기 비축량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의 비축 및 판매량은 2016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미국 내 쇠고기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호주의 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약 13%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전년대비 7% 증가한 27억 2,000만 파운드⁷⁾로 전망된다. 달러화의 강세는 이러한 수출증대 효과를 일부 제약하는 요소로 판단되나, 2017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경우에도 자국 내 사육두수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요구되는 생물학적 순환 과정 때문에 당분간 쇠고기 수출에 있어 미국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자국 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와 오세아니아 지역 내 쇠고기 공급의 제약으로 전년대비 약 11% 감소하였다. 더욱이 쇠고기 도축량 증가에 따라 가공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7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9% 더 감소한 2,740억 파운드⁷⁾로 전망되고 있다.⁷⁾ 다만 조사료 및 도축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멕시코와 2015년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얻은 후 쇠고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향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을 일정부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내 조사료 생산 및 대체 육류 공급 증가로 인해, 2017년 5개 주⁸⁾ 거세우 가격

5) 1,0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오히려 1% 가량 증가했음.

6) 더불어 도체 중량은 두 당 828파운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7) 특히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입국 중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 내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수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은 100파운드(centum weight, CWT) 당 109~116달러로 전년 평균(121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⁹⁾ 더욱이 향후 송아지 가격 및 비육장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들은 경영효율화(조사료 적정 공급)를 통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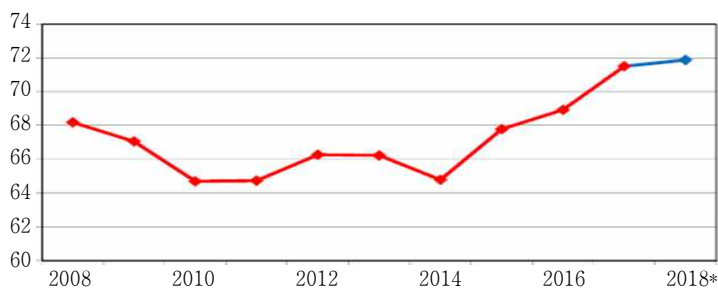
2.2 돼지 및 돼지고기 생산 전망

2015년에서 2016년 초반의 미국 내 양돈 수익성 증가로 인해, 2016년 중반 이후 양돈농가들은 사육두수를 늘리고 더 많은 모돈(sows)을 분만하였다. 더욱이 해당 시기의 모돈 두당 출산두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7년 상반기의 양돈농가들은 이를 경계하여 사육두수를 보다 신중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과거 사육확장의 여파로 2017년의 돼지 도축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적정 도축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패턴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대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2월 분기별 돼지 및 돼지고기 보고서¹⁰⁾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미국 내 돼지 사육두수는 총 7,150만 두로 전년 동기 대비 4% 가량 증가하였으며, 1943년 이후 가장 많은 사육두수로 파악되었다. 또한 번식돈(breeding herd) 역시 과거(2015년~2016년 초) 높은 수익률과 도축기술 발달, 돼지고기 수요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610만 두로 추정되었다.

그림 3. 미국 돼지 사육두수 전망

단위: 백만 두



주: *는 전망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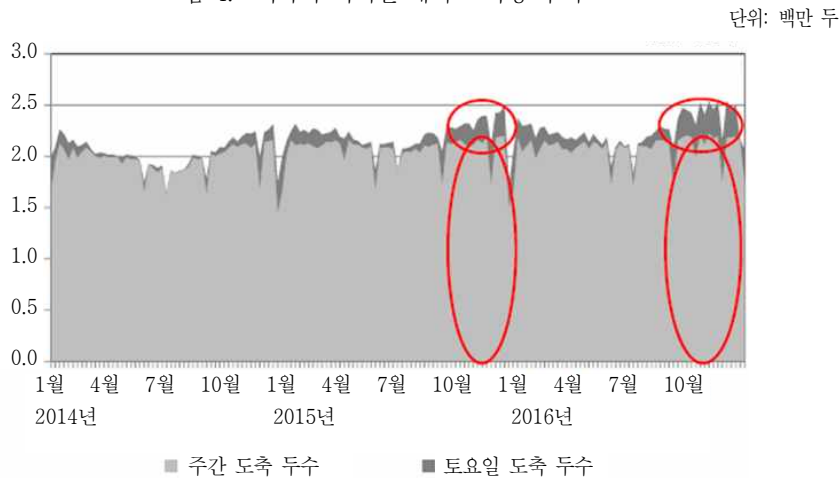
8) Texas/Oklahoma/New Mexico, Kansas, Nebraska, Colorado, Iowa/Minnesota.

9) 더불어 비육용 거세우(feeder steer)가격 역시 전년(143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132~139달러)으로 전망됨.

10) Quarterly Hogs and Pigs report.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미국 내 양돈농가들이 2016년 하반기에 모돈을 2% 가량 더 분만하였으며, 이후 2017년 상반기에도 1% 가량 더 분만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최근 모돈 두당 출산두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육두수는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이전 수준까지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던 돼지 조사료 생산량도 2017년의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2017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적정 도축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격결정에 있어 점차 중요성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미국의 시기별 돼지 도축량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2016년 3/4분기 미국 내 비육용 새끼돼지(early-weaned feeder pig)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입의 제약 요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미국의 비육돈 총 수입량은 미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와 가격 회복 추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 가량 증가한 582만 두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상업용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가량 증가한 26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이는 대부분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앞서 제시했듯 도체 중량 증가분 역시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시장수요와 도축 가능물량(공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정 출하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육돈 체중 역시 적절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 미국 내 돼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7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56억 4천 만 파운드에 전망된다. 2016년의 돼지고기 수출량 역시 전년대비 4%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하락, 미 달러의 강세, 자국 내 경제 성장이 수출을 뒷받침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일본 및 유럽연합(EU)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은 다소 정체되거나 감소하였으나, 중국, 멕시코, 홍콩시장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분을 상쇄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돼지고기 주 수입대상국인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8% 가량 감소하였으며, 덴마크로부터의 수입 역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2017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0억 9천 만 파운드에 전망되고 있다. 물론 폴란드 등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향후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 미국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간주될 것이라던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미국 내 돼지고기 가격은 42~45달러/CWT로, 전년(46달러)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요 및 도축물량은 경제성장과 도축 기술의 발달로 자국 내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나, 전체 육류의 공급 증가로 인해 돼지고기는 해당 기간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육돈 역시 일정부분의 가격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양 및 양고기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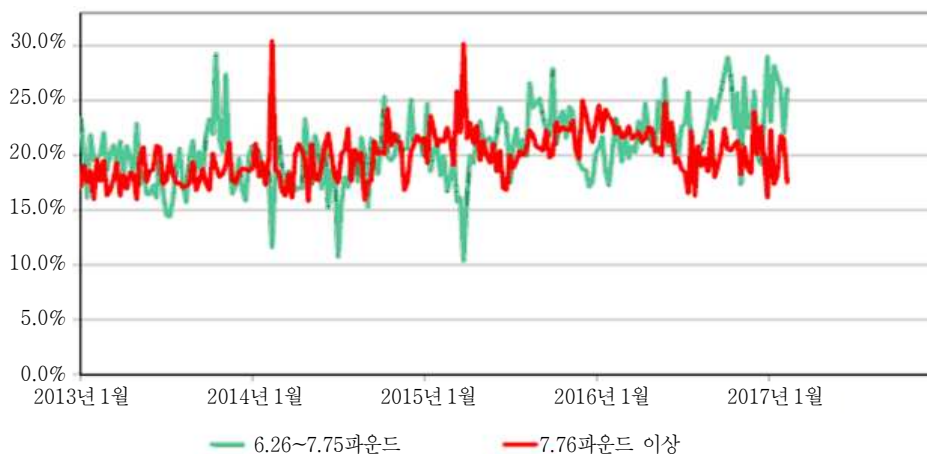
2017년 1월 1일 기준 미국 내 양(sheep) 및 새끼 양(lamb)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2% 감소한 520만 두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번식무리(breeding flock)는 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며, 대체용 새끼 양(replacement lamb)은 2% 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미주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직 와이오밍(Wyoming)주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만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육농가들은 지난 2년의 양고기 가격 하락 추세에 반응하여, 사육두수 및 양고기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시장에서의 양고기(lamb and mutton) 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였으며, 2017년의 양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억 4,800만 파운드에 전망된다.

2017년 미국의 양고기 수입량은 총 1억 9,70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고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고기 수요는 대체 육류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끼 양 과다 사육의 여파로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양고기 수입 역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과 수입량에도 불구하고, 2017년 양고기 가격¹¹⁾은 129~136달러/CWT로 전년(135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닭 및 닭고기 생산 전망

2017년 미국 내 닭고기(broiler meat) 생산량은 415억 3,00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약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사육두수 및 도체중량의 더딘 증가로 인해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육계 마리 당 도체중량은 지난 3년간 매년 1%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 그 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¹²⁾ 이는 과체중 육계의 가슴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닭가슴살 근육병을 경계한 육계 업계의 반응으로 판단된다. 향후 미국의 육계업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의 육계 평균 도체중량 역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5. 미국의 과체중 육계 도축 추이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11) The San Angelo Choice Slaughter lamb price.

12) 2016년 말 육계 평균 중량은 2015년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7.76 파운드 이상으로 판매되는 육계 역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미국 내 육계 사육두수는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초반까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2016년 2/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2015년 중반 이후 악화 기로에 진입한 농가 수익률은 2016년 후반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이 역시 2014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1월의 육계 가격 역시 2016년 평균 대비 약 1% 낮게 책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사육농가들은 직접적으로 사육두수를 확장하기보다 산란계 산란율 개선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미국산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69억 3,000만 파운드로 예측되며, HPAI의 여파로 인한 수출 급감 이후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HPAI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외 시장에 있어 미국산 닭고기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닭다리 살의 경우 교역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 동향에 민감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미국산 닭고기 수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¹³⁾

2016년 미국 내 종합 도매시장¹⁴⁾의 파운드 당 육계 가격은 평균 0.84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0.82~0.87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초반에는 닭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육계 가격이 다소 오르겠지만, 중반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후반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칠면조 생산 전망

2017년 미국 내 칠면조 생산량은 전년대비 2% 가량 증가한 61억 2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16년 상반기의 칠면조 가격이 HPAI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농가들은 부화란 및 사육두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다.¹⁵⁾ 하지만 칠면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재고량 역시 2012년 이래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결국 2017년 초반 칠면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7년의 암 칠면조 가격은 HPAI 이전 수준인 1.04~1.10달러/파운드로 2016년 평균(1.17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하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 닭다리 살의 경우 자국 내 육계 생산량으로 자국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지만, 타 국가와의 교역 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통적인 국제경기동향을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National Composite wholesale.

15) 2017년 2월 1일 기준 미국 내 칠면조 부화란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하며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화한 새끼 칠면조 사육량도 전년대비 5% 증가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나타내었음.

그림 6. 미국의 칠면조 사육두수 추이

단위: 백만 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2017년 미국의 칠면조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6억 3천만 파운드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¹⁶⁾ 아직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여파로 미국의 칠면조 수출은 HPAI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대량 공급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규모 국제 시장에 대한 미국산 칠면조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⁷⁾

2.6. 2017년 미국의 계란 생산 전망

2017년 미국 내 총 계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85억 5천만 다스(dozen)로 전망되고 있다.¹⁸⁾ 또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갓 태어난 산란종계(egg-type hatching flock)가 전년대비 2% 가량 증가함에 따라, 2017년의 식용 계란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2% 증가한 74억 2천만 다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욱이 미국 내 육계 및 계란 수요가 확장됨에 따라, 당해년 종란(hatching egg) 생산량 역시 일정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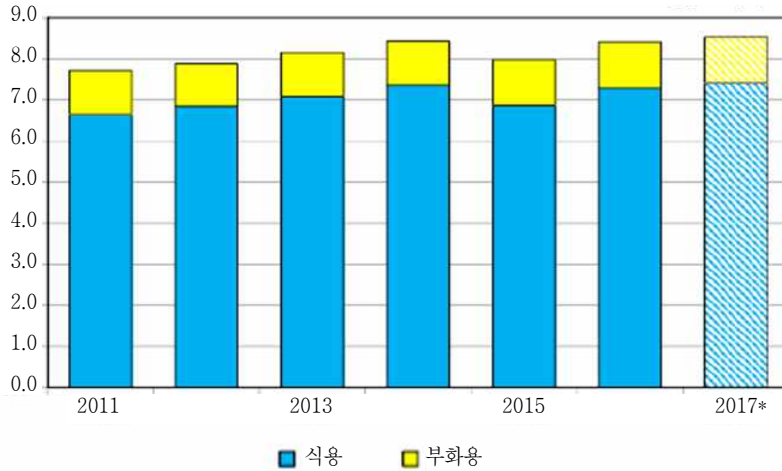
16) 미국의 칠면조 수출량은 2015년 HPAI의 여파로 전년대비 34% 감소(5억 2,900만 파운드)하였으나, 2016년 증가세를 회복한 이후 2017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7) HPAI 이전, 미국의 칠면조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중국이었음.

18) 2016년 중반 미국 내 산란계 사육두수는 이미 HPAI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당년 4/4분기 계란 생산량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림 7. 미국의 계란 생산 전망

단위: 10억 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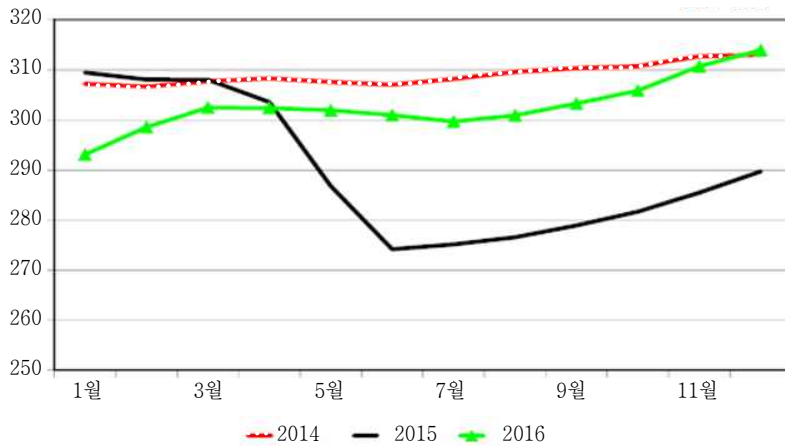


주: *는 전망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하지만 산란계 사육두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농가들은 사업 확장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6년 4월에서 9월까지의 산란계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2016년 4/4분기에는 그 추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8. 미국의 산란계 사육두수 추이

단위: 백만 수



자료: 미국 농무부(USDA) 농업전망(2017).

2016년 미국의 일반 달걀 및 달걀 제품 수출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2억 7,900만 다스였다.¹⁹⁾ 하지만 당해년 하반기의 계란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량 역시 전년 (2015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7년 미국의 계란 수출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3억 2,500만 다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⁰⁾

2017년 뉴욕 도매시장²¹⁾ 기준 계란 가격은 2016년 평균 0.85달러를 상회하는 0.93~0.98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과거 HPAI로 인한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불안정했던 미국 내 계란 가격은 생산량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과거 전형적인 가격 패턴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 HPAI 이후 2016년부터 미국의 계란 생산량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가격은 높은 수준이었음.

20) 더욱이 HPAI가 발생하여 올해 초 미국의 신선란에 대한 수입을 허가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계란 수출량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New York wholesale.

참고문헌

Shayle D. Shagam. 2017.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2017*. USDA.